

美國에서의 原子力發電

Nuclear Power in the United States

J. Bennett Johnston <美國 루이지애나州 上院議員>

原子力은 세계 어디에서나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供給源이고 環境保存側面에서도 아주 깨끗한 에너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도 美國에서만 例外的인 대접을 받고 있다. 美國에서는 民間의 原子力發電事業은 완전히 죽고 말았다.

지난 10年間 美國에서는 112基의 發電炉가 취소되거나 포기되었으며, 1978년 이후엔 새로운 發電가 한基도 없었다. 1974, '75, '76, '77년도에 發電되었던 모든 發電炉가 계약취소되는 悲運을 맛보았다. 한때 미국에서는 2000년까지 몇百基가 稼動될 것이라는 푸른 꿈을 품은 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2000년에 125基가 운전된다면 다행일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美國에서는 90基의 原子力發電所가 完工되어 있는 상태이고, 45基가 建設中에 있는데 그 中 몇基는 취소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의 原子力占有率은 13%를 나타내었으며, 2000년도에는 20%가 될 展望이다. 美國에서의 2000년도 原子力展望은 他國에 비해 크나큰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지금보다 改善될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今世紀 末까지 美國에서는 原子炉의 新規發電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은 前無後無의 狀況이다. 1970年代에는 例년에 없던 樂

觀論이 美國 原子力産業界를 지배하고 있어서 1965년에 27基였던 新規發電가 1970년에는 107基, 1974년에는 223基로 驚중 뛰었다. 1960年代에는 美國에서 電力事業을 하는 일은 아주 쉬운 課題였다. 電力需要는 해마다 7~8%比率로 成長하여 이것을 充當키 위해

- 豫測 가능한 發電原價
- 豫測 가능한 資本費
- 豫測 가능한 建設費
- 豫測 가능한 工期와 認許可 取得時間
- 豫測 가능한 燃料費와
- 豫測 가능한 規制

로 會社를 운영할 수 있었다.

그리고 發電所를 새로 지으면 既存의 發電所보다 더 新式이고 效率이 좋아 언제나 經濟的인 이득을 보았다. 따라서 新規發電所가 系統에 投入될 때마다 發電原價는 내려갔다.

1960年代 後半과 1970年代 初半에 가동되기 시작한 原子力發電所는 kWh당 1~3¢라는 싼값으로 발전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모두가 原電을 注文한 것이다.

그러나 1974년부터는 樣相이 急變하였다. 불행히도 나쁜 方向으로 변한 것이다. 1970年中

業과 後半에 가동을 시작한 發電爐는 점점 비싸지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TMI事故 以後의 原電은 電力會社를 破産으로 몰고갈만큼 위협적인 존재로 둔갑하였다.

나의 出身州인 Louisiana州의 主要電力會社의 예를 들어 보면, 이 회사가 原子力建設에 288%의 common equity를 投資하였다. 현재 發注中인 12基 이상의 原子爐의 建設單價는 \$3,000/KW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것은 1970年度의 예측치의 10倍를 上廻하는 것이다.

New York州 所在의 Niagara Mohawk Nine Mile Point原電은 앞으로 2년안에 竣工되면 50억弗의 建設비가 들게 될 것이다. 이런 建設비로 建設한 原電에서 발전하는 전기는 18cents/kWh로 판매해야 할 것인데, 이 값은 기존 石炭火力이나 原電의 발전원가의 무려 5배나 되는 값이다. 石油火力으로 이같은 高價의 電力을 생산한다면 석유값이 barrel당 \$90는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곧 竣工될 原電의 發電原價는 80% 내지 100%까지 올라가야 할 것인데, 전기값을 이렇게 올리려면 맹렬한 政治的 反對에 봉착할 것이 틀림없다.

이 밖에도 原子力에 대한 理想的인 반대현상도 尚存한다. 그렇지만 참말로 原子力에 대한 政治的 支持基盤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電力料 金引上이다. 이렇게 前代未聞의 最高價의 原子力發電所를 가동하기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정치적 混沌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런 狀況下에서 原子力을 지지했다간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美國밖에 사는 사람들은 美國에는 石炭이 풍부하기 때문에 原子力을 안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얘기는 믿지 말라. 왜냐하면 原子力産業이 안고 있는 문제가 深刻한 것만큼 石炭使用問題도 이에 못지 않게 심각하기 때문이다. 美國에서는 石炭使用을 반대하는 政治活動이 점차 增大해 가고 있

다. 현재 酸性비 문제는 第一級의 政治爭點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石炭火力이 지닌 制限條件을 충분히 맛보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

앞으로 建設될 石炭火力으로 부터 발전될 전기값은 기존 石炭火力이나 原子力發電原價의 2~3배가 될 것이다. 美國에서는 原電을 建設하고 認許可를 받으려면 12년이 걸리고 大型石炭火力의 경우는 8년이 걸린다. 石炭火力이나 原子力이나를 막론하고 發電所를 지으려면 着工前에 아주 엄격한 環境檢討를 받아야 한다. 지난 3년간 美國에서는 大型石炭火力 新規發注가 단지 2基 있었을 뿐이다. 1982년과 1983년의 兩년에 29基의 石炭火力發電所가 취소되었고, 같은 기간에 13基의 原電이 취소되었다. 현재 美國에서 發注中에 있는 原子力容量은 5,000만KW를 약간 넘을 뿐이고, 石炭火力은 3,000만KW가 조금 넘는다.

美國은 原子力에서 石炭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新規發電所도 建設치 않고 있는 것이다. 美國 電力會社들은 石炭이건 原子力이건 모두 새로 짓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렇게 거부한 자리를 메꿀 代替方案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있다. 즉, 美國은 오로지 新規發電所建設을 中止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美國이 新規發電所를 필요로 할 것임은 거의 明白한 사실인데, 그것은 經濟成長은 새로운 발전소건설을 要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가 低成長일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발전소건설을 中止하고 있다는 論理는 成立되지 않는다. 우리가 발전소를 안짓는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理由 때문이다.

앞으로 電力需要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不確實하다. 1970年代 이전의 몇년동안 美國에서의 電力需要는 연간 8%씩 꾸준히 增加하였다. 그러던 것이 1977~1983年間에는 2% 이하로 떨어졌다. 다만 1984年度에는 4.5%를 기록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意見과 異見이 分분하다. 2, 3, 4, 5% 또는 그 이상이 될지 그 이하가 될지 어떤 合議도 못보고 있다.

資金의 原價도 不確實性을 내포하고 있다. 1965년도엔 最優待金利가 4.5%였는데, 이것은 1981년도의 18.9%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것이었다. 美國 行政府는 巨額의 財政赤字를 안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樣相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經常收支의 財政赤字는 앞으로의 利子率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언제 얼마만큼 크게 미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建設費의 인플레이션도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1965年度의 인플레이션은 1.7%였었는데, 1980년엔 13.5%로 급상승하였다. 현재의 美國 인플레이션率은 낮은 편이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不確實性中 가장 심한 項目은 規制側面이다. 지난날 이 成長産業을 다만 單純하게 直線적으로 規制하던 것이 이제는 그 모습이 완전히 轉倒되고 말았는데, 그 主役은 原子力 방해꾼들, TMI事故, 갈광질광하는 規制制度들이다. 이런 主役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한때는 書類를 제출하면 그냥 통과되던 黃金時節의 장미꿈은 산산히 부서져서 이제는 전혀 科學的 근거도 없이 規制를 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오로지 法律家의 利得을 위한 것이 되고 말았다.

가령 당신이 美國 電力會社의 社長이라고 가정하고 이러한 여러가지 不確實性에 直面하여 原子力發電所를 지어야 할 것이냐 않을 것이냐를 決定해야 할 입장에 서있다고 상상해보자.

만일 당신이 지금 原電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需用家들에게 충분한 電力을 공급할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신의 供給區域은 電力不足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이 發電할 전기는 전부 판매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지금 이 發電所를 짓기로 하여 노심초사 끝에 건설하였는데, 나중에 需要가 늘지 않아 발전설비가 남아 돌아가게 된다고 하자. 그런 어려운 경우에 직면하였을 때 規制當局이 이렇게 남아 도는 發電設備에 대한 資本費를 補償하라고 電力料金を 引上해 주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당신회사는 破産하게 될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資本費에 대한 利子는 누적될 것인데, 그런 不運의 사태에서 헤어نا 보려고 당신은 끈질기게 規制當局에 是正策을 요구할 것이지만, 그런 요청은 몇년이고 이쪽저쪽으로 膜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融資金에 대한 元利金은 눈덩이처럼 쌓이게 될 것이다. 드디어 당신회사는 財政的으로 헤어날 수 없는 상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발전소를 짓지 않는 것이다. 미국내의 電力事業體안엔 이런 心理가 膨大하게 퍼져 있다. 따라서 당분간 美國 發電會社 任員들과 企劃樹立部署에서는 신규발전소를 안짓는 方向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크나큰 誤謬를 범하게 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原子力發電所의 安全性과 環境記錄에는 전혀 不確實性이라는게 없었다. 지금까지의 기록은 아주 훌륭하다. 이런 뛰어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原子力産業은 新規發注를 하나도 못받았으며 또 앞으로 받을 展望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훌륭한 기록이 立証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력회사들은 장차 10년안에 도래할 것이 明白한 發電設備不足事態를 해결키 위해 原子力發電所를 건설하려는 모험을 시도하려 하지 않고 있다. 長期需要成長에 대비하여 머나먼 앞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電力産業界가 오로지 短期의 救急策에 급급한 상태로 후퇴하고 말았다.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Three Mile Island事故에 起因하고 있다. 어느날 잠깐 하루안에 일어난 벨브의 誤動作과 運

轉員의 잘못은 모든 反核分子들의 騷擾와 모든 放射性廢棄物問題와 모든 原電建設 책임자들이 10년간 저지를 수 있는 不注意를 전부 합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주었다. 이런 단순한 사고와 그후에 TV에서 誇張報導한 言論때문에 大衆은 原子力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나쁜 印象을 받게 되었고, 原子力産業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을 뿐만아니라 認許可節次는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美國原子力規制委員會(US NRC)는 이 문제에 대한 公報洪水에 밀려 크나큰 손상을 받은 결과 守勢에 물리게 되었다. Three Mile Island 事故發生을 계기로 하여 NRC는 安全性的 확보라는 口實로 發生可能性이 거의 없는 문제까지도 포함한 수많은 安全對策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리고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각종 規定을 建設中인 모든 발전소에도 遡及適用한 것이다. 그중에 어떤 設計變更事項은 오래전에 竣工된 발전소를 뜯어내야 하는 일도 非一非再하였다. 더구나 이런 規定適用이 그후 2년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에 거의 竣工段階에 이른 발전소도 完工시킬 수 없게 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었다.

현재 NRC에 계류중에 있는 새로운 規定이 90개나 있고 또 安全性 相關사항은 60件이나 되는데, 이것이 적용되는 날에는 현존 美國 發電 爐 1기당 1억弗 내지 2억弗의 改造作業費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NRC의 規制改善特別班이 遡及改造問題에 대해 작성한 최근 보고서에 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原子力規制委員會 간부들의 遡及改造指令事項들은 需用家들에게 수십억弗의 추가부담을 안겨주게 되었으며, 原電運轉과 補修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게 되었다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行政節次上 더욱 불확실성과 마비된 遲延事態를 誘發케 되었을 뿐만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公衆의 保健과 安全을 增進

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後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規制節次上的 모순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게 된 것은 다름아닌 電力會社이다. 왜냐하면 지난날 제대로 熔接한 部位도 단지 올바르게 熔接했다는 文書를 찾아낼 수 없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다시 잘라내어 再熔接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건설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건설 공들은 高賃金支給이 보장된 作業에 대해서 NRC 檢査官이 建設作業이나 방법에 의구심을 가질만한 꼬투리라도 있으면 더욱 더 시간연장을 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 결과 工期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省略되었다거나 저것이 빠졌다거나 하는 匿名의 告發이 數百通話씩 접수되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설치를 쓸데없이 뜯어내거나 再建設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또 原電建設管理를 統制하기 위해서 새로운 重疊管理體制가 수립되었다. 그래서 權限과 책임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TMI사고후엔 安全性要求事項이 새로이 나오기만 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력한 壓力이 생겨났다. 그런 안전성에 관련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돈이 얼마나 들 것인가에 대해 問議하는 사람이나 同情하는 者는 아무도 없었다. NRC는 原價의 上限線을 정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으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原子力規制委員會가 이미 건설된 原電에 대한 事後改善措置示達事項中 한가지를 예로 들어 보면, Beaver Valley 2號機에 대한 降雨對備策이 있다. 지금까지 이 地域에서의 最大降雨量은 1876년도에 있었던 時間當 2.09"라는 歷史記錄이 있는데 규제당국은 무턱대고 이것의 4배인 시간당 9.3"로 올리라고 命命했다. 그러던 것이 再設計過程에서 最大降雨豫想值를 歷史記錄의 거의 9배인 17.6"/hr로 높이려고 했다. 이런것 저런것 事後改善하라는 것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무려 1억弗가 추가로 所要될 판이다. 그리고 이런 改善作業을 하기 위해선 稼動中止해야 하므로 하루 100萬弗의 손해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美國이라는 나라는 原電을 건설하고 운전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프랑스나 日本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도대체 美國이라는 나라에는 原子力産業을 총괄하는 中央機構가 없다. 美國에는 40개 이상의 發電會社가 原子力發電所를 갖고 있거나 건설중에 있는데, 이처럼 많은 발전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所有權이나 管理體制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 中구난방식으로 자기 멋대로 原子力發電事業에 임하고 있다. 각 전력회사의 電力料金 策定權과 대부분의 환경규제업무는 電氣供給區域이 속해 있는 해당 州政府當局의 管轄소관사항이다. 따라서 각 州마다 이런 문제들을 규제하는 각기 다른 法과 施行細則을 갖게 되었다.

한편 原電의 설계, 건설 및 운영의 安全問題는 聯邦政府의 所管이며, 이것을 原子力規制委員會를 통하여 行使하고 있다. 그런데 이 NRC는 規制하는 일에 너무도 熱中한 나머지 이의 使用을 勸獎하지는 않고 있다. NRC 委員들은 각기 독립된 規制官이어서 심지어 大統領의 지휘감독조차 받지 않고 있다. NRC 委員은 行政政策에 집착할 의무가 전혀 없으며, NRC 委員長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委員들은 한번 任命되면 5년동안 자리가 보장된다. NRC 委員들은 委員會에 제출된 公的記錄에 대해 討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委員 상호간의 대부분의 의견교환은 文書로 하게 된다. 美國에는 “유리창 行政法(즉, 누구나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만든 法, government-in-the-sunshine laws)”이라는 것 때문에 이들이 발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文書는 公開되고 있다. 그래서 委員들은 자기들의 言語驅使에 극히 조심하며, 또 글을 쓸 때는 무척 신경쓰고 誇張하는 경향이

있다.

각 委員에게는 소수의 직원이 배속되어 있으나, 委員會 自體는 굉장히 많은 수의 永久職公務員을 갖고 있다. 그리고 委員들은 任命되면 들어오고, 免職되면 나가지만 委員會의 永久職幹部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大統領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고 그렇다고 委員들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으면서 오로지 자기 혼자 天上天下 唯我獨尊의 存在로서 權力을 行使한다. 委員會가 전력회사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마치 法庭에서 審問하는 것처럼 무조건 반대하고 敵對視하는 입장에서 절차를 취하는 폐단이 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의당 勝者와 敗者가 생겨나게 마련인데, 그것은 전혀 科學的인 眞理나 安全性 또는 經濟性提高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 時點에서 美國이 自問自答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 하나 있다. 그것은 單刀直入的으로 우리가 과연 原子力을 원하느냐 않느냐의 兩者拮一이다. 그런데 이 물음은 아직껏 提起되지 않았었다. 나 개인의 생각으로는 原子力이 필요하다. 대답이 나와야 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그 대답은 곧 나와야 할 것이다. 石炭은 酸性비를 오게 하기 때문에 原子力의 代役으로는 적합치 않다. 따라서 電力生産을 위하여는 궁극적으로 原子力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우리가 정말 原子力쪽으로 기울어지려면 美國의 原子力規制制度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이 作業을 정말 하려면 우선 현재의 프랑스와 日本制度에 눈돌릴 필요가 있다. 이 두나라에서는 美國에서의 소요시간의 半으로 原電을 건설하고 許可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은 아주 경제적이다. 그러면 프랑스와 日本에서는 安全性問題를 적당히 빼먹고 간단히 넘기고 있는 것일까? 美國에서는 프랑스와

日本보다 原電建設과 認許可에 6년을 더 소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여분의 시간만큼 安全性이 提高되고 있던 말인가?

美國은 訴訟萬能의 사회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꾸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美國 法科大學들이 輩出한 작년도의 졸업생 수가 현재 日本에 있는 全 변호사와 法律家數보다 더 많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 아마도 현재 施行中인 美國의 규제절차를 몽땅 없애고 새로 制定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이 일에 着手해야 한다.

우리는 우선 原電의 標準設計開發에 손대야 하고, 다음으로는 그렇게 설계한 原電은 一事不再理原則에 입각하여 일사천리로 認可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標準設計原電 建設敷地에 대해서는 반드시 事前承認을 받아 놓아야 한다. 標準設計承認을 받은 共通事項과 사전승인된 부지에 대해서는 認許可過程에서 再檢討나 再訪問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일단 標準設計가 좋다고 判定된 다음엔 電力會社가 敷地特性에 맞게 표준설계대로 건설하고 있느냐만을 문제삼아야 한다. 後續節次에서는 일단 承認한 設計가 안전한가 안전치 않은가에 대해 再判定하는 따위와 같은 일은 없어야 한다.

기존시설의 次後改善措置命令은 오로지 그 改善設置作業으로 말미암아 公衆保健과 안전이 提高될 것이며, 그것이 經濟的으로도 利得이라는 것이 입증될 때만 示達되어야 하는데 이같은 종류의 法制定은 目下 고려중에 있다. NRC는 現行의 次後施設改善令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NRC는 재판과 흡사한 認許可節次를 두 가지 가지고 있다. 하나는 着工前에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竣工後와 運轉前 時期 사이에 있는 절차이다. 그런데 이 중 두번째 절차에서는 첫번째 절차를 밟을 때 의당히 完決되었을 事項을 처음부터 다시 문제로 提起하여 또

다시 論爭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발전소설계가 안전한가 또는 그 設計가 그곳 특정부지에 적합한가를 따지는 것과 같은 따위이다. 만일 전력회사가 적절한 設計資料를 제시하기만 하면 수속을 밟는 절차는 한번으로 끝나야 하고, 許可節次도 단 한번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NRC의 節次改善에 대해 한마디 하려 한다. 그것은 NRC 委員長이 NRC 幹部와 組織에 대한 統制權을 強化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原電이 보다 더 안전하고 科學技術이 올바른 方向으로 定着하도록 바꾸어 저야지 무턱대고 반대하거나 敵對視하는 식으로 認許可節次를 고쳐서 거기에서 어떤 利得을 얻어 보겠다는 막연한 기대쪽으로 變化를 試圖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改善策은 合理的이고 妥當한 일일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이런 變化가 언제서 오래전에 채택되지 않았는가에 대해 의아심을 갖게 될 것이지만,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의 한가지를 지적한다면 1985년 時點에서 관찰하던대 美國에서는 原子力의 重要性을 日本보다 덜 認識하고 있으며, 더우기 장래에는 原子力의 潜在力이 보다 더 深化될 것이라는 未來의 原子力寄與度에 대해 덜 評價하는 인식의 差異點을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美國의 原子力規制當局이 아직도 1970年代에 일어난 惡夢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先進工業社會에서 原子力이 필요하다는 것은 不可抗力의인 추세이다. 美國에서는 規制때문에 이런 確固不動한 原子力을 經濟的으로 供給하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發展이나 沈滯나 兩者拮一의 分岐點에서 一大勇斷을 내려야 할 입장에서 있다. 이 분기점에서 있는 美國은 發展쪽을 택하게 될 것을 바라고 또한 그렇게 되리라 믿는 바이다.